



그리스 제2차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평가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유로존 재무장관회의는 2월 22일 1,30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제2차 구제금융 지원(안)에 합의함.

-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리스의 정부부채 감축을 전제조건으로 2014년까지 대출과 보증을 통해 1,3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합의함.
 -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리스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현재 164%에서 2020년 120.5%로 감축할 것을 요구함.
- 민간채권단의 손실부담률이 액면가 기준 53.5%(순현재가치 기준 70%로 합의되면서 그리스 부채는 약 1,070억 유로 감소하게 됨.

■ 그러나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(안) 지원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의 의회 승인, 시장에서의 신뢰회복, 긴축에 대한 그리스 국민들의 반발 등의 난제로 그리스 위기는 여전히 상존함.

- 추가 구제금융(안)이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승인되었으나, 독일, 네덜란드, 핀란드 등 북부유럽 국가의 의회에서는 승인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.
 -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 전제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며, 그리스가 긴축(안)을 성공적으로 이행할지 여부도 의심된다고 밝힘.
- 유로존이 힘들게 그리스 추가 구제에 합의했으나, 시장의 반응은 냉담한 모습임.
 - Financial Times는 그리스 국채 교환이라는 시급한 문제는 해결되었으나, 정상적인 방법의 국채 차환은 요원하므로 그리스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평가함.
 - 추가 구제(안)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국채수익률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으며, 유럽 증시와 유로화 가치도 별다른 호전을 보이지 못함.
- 그리스 국민들은 추가 구제금융의 효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임.
 - 설문조사¹⁾ 응답자의 78%는 추가 구제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국이 결국 디폴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함.

- 또한, 응답자의 77%는 모든 희생을 치르더라도 유로존에 반드시 잔류해야 한다는 생각에 의구심이 든다고 대답함.
- 아울러 응답자의 97.5%는 구제금융 조건인 긴축조치들이 자국에 너무 큰 희생을 가져온다고 반발함.

■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유럽중앙은행(ECB)의 국채 매입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의 추가 구제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사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됨.

- Wall Street Journal은 이번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 지원에서 ECB의 국채매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신 ECB가 국채교환을 통해 얻은 450억~500억 유로 규모의 수익이 지원될 뿐이라고 밝힘.

(Wall Street Journal 2/22, Financial Times 2/22)

1) 설문조사는 여론조사업체인 GPO가 그리스 민영 매가TV의 의뢰로 1,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, 그 시기는 2차 구제금융 패키지의 지원 내용이 알려진 이후인 2월 16~20일인 것으로 판단됨.